

의 專門的 役割에 관한 研究

宋 鄭 府*

1. 問題提起

현대사회의 특징인 산업화, 도시화, 대중화, 관료화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문제의 대책은 특히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생존(생명+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제도·시책의 체계가 있다. 이 사회복지제도와 시책의 영역에서, 官·公·私의 조직과 시설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사회사업가 *social worker* 또는 사회사업종사자 *social work personal: employee working in a social work program*라고 부른다. 이들의 역할은 사회복지의 사회적 기능이 그렇듯이 사회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응원조기능과 사회개혁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빈곤과 여러가지 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인간의 전면적 발달에 저해되는 가지가지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는 사회복지의 활동이 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사업가'이다. 그래서 사회생활상의 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사업가에 대하여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사업가는 객관적 기대와 사회사업가 본인 자신의 주관적 가치, 내면적 동기에 의해 사회사업의 일선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 더우기 사회사업의 대상영역이 전 인간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성 즉, 인적대상과 문제성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실천특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사랑과 봉사정신이 중요하며 사회사업가의 사명과 자세가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강조는 「사회사업의 윤리강령」 *Social Code of Ethics: ethical code for social work*이 대표하

* 尙志大 社會福祉學科 副教授

·회사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할 만 것이다.

물론, 전문직업적 활동체계는 사회복지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부족한 또는 그것 만이 아닌 다른 발전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에 의하여 새로운 이론과 실천방향을 모색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발전형식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상상력 또는 발상을 구체화 해 보려는 것이다. 그 구체화의 대상은 특히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사업'만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사회사업가', 다시 말하면 일반 사회사업종사자 외에도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이유는 사회복지가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천목적 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을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담당하는 종사자가 필요하며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약, 종사자가 없으면 '사업'의 실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사업실천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사업종사자들의 존재를 재확인해야 하겠다. 그래서 사회사업의 종사자 특히 사회사업가 그 자신의 주체적 측면에서 ① 사회복지종사자의 의미, ② 사회복지근로활동의 체계, ③ 사회사업가의 역할과 전문성을 이해하여 가려고 한다.

우선 필자의 시점은 '사회사업가의 주체적 측면'에서 사회사업가의 행위 지침을 생명유지와 생활영위를 위한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존재자로서 위치를 규정한다. 이 존재자인 사회사업가는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여러 직업구조의 한 분야인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금을 받아 본인과 그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사업가도 봉급생활자이고 임금근로자이며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복지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전문적 활동=봉사=근로이며 그 활동의 대가로서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직업으로서의 사회사업'의 성격이 봉사와 근로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직업으로서의 봉사'·'봉사로써의 직업'이라는 사회복지의 봉사개념적 성질 및 경제개념적 성질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가들을

아야 하겠다. 이 직업적 성격의 양면성과 이중구조를 인정하고 '복지성근론'을 탈피한 윤리·봉사개념과 경제·근로개념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과 사회사업가론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시킨다.

그리고 현재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사업이론에 입각한 더우기 기술론적 입장에서 「사회사업가론」이 전개되었으며, 정책론적인 입장에서 혹은 기술론과 정책론이 통합한 전체이론에 서서 기술되는 사회사업가론은 없었다고 본다. 또 사회복지이론에선 사회복지종사자론도 역시 없어 이러한 것들을 의식하며 논리적으로 사회사업가론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2. 社會福祉勤勞者의 意味

사회복지근로(이하 복지근로 *social welfare labor*)는 사회복지근로자(이하 복지근로자 *social welfare laborer*)가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대하여 행하는 공공적인 복지서비스이다. 그 주요한 근로대상은 빈곤자, 아동 및 청소년, 모자, 부녀, 노인, 장애인 등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실정법에 기초하여 대상의 분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근로의 법적 근거를 보면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헌법 제30조에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되었고 사회복지의 대상은 국민생활의 전영역에 걸친 것으로 했으며 모든 국민이 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근로자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있어 임금근로자이다. 그래서 대가임금의 확보와 생활안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더우기 근로의 특수성으로서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고도의 윤리성이 중요하다. 즉 인간의 복지에 직접 기여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일반(생산근로)과는 다른 윤리성(휴머니즘과 과학성에 기초하는)이 필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사회복지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이나 전문직업적 윤리성이 강조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근로와 윤리성에

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 한다.

우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18조). 또는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제16조)이 있으며, 근로자는 직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제14조). 다음으로 전문직업적 윤리성에 관한 것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종사의 '윤리'론적 성립과 '근로'론적 성립의 근거를 알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의 실천은 윤리적 근로 내지 근로의 윤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윤리적 측면만을 주로 강조한 사회사업가론 보다는 근로개념도 고려한 사회복지실천자 *Practitioner*

〈표 1〉 분야별 직종

대 상	사 업	법 률	적 용
민 근로자	생활보호사업	생활보호법	지역담당직원
아 동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상담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부 인	부녀보호사업 모자복지사업	윤락행위등방지법	부녀상담원
노 인	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상담원
질 병	의료사회사업	의료보호법 생활보호법	의료사회사업가
신 체 장애	신체장애자복지사업	심신장애자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 생활지도원
정 신 장애	정신약약자복지사업	심신장애자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 생활지도원
비 행 · 법 려	경쟁보호사업	경쟁보호법	
권 령 피 해	원호사업	군사원호보상법	
재 해	재해구조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 역	지역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협의회직원

사회복지실천자를 사회복지사업가→사회복지담당자→사회복지사→사회복지근로자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원조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담당직원이 복지근로자이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직종을 파악할 경우 사회복지 내지 사회복지의 개념과 대상의 규정방법에 따라 복지근로자의 개념 및 활동분야가 다르다.¹⁾ 그러나 사회복지관계의 법령에 의해 분야별 직종을 유형화시켜 보면 표 1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3. 社會福祉勤勞의 體系

사회복지는 국가에 의한 정책화·제도화가 행해지므로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대상자와 대상문제에 직접 결합되는 것이 아니고 양자 사이에 일정한 활동이 매개되므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이 사회복지정책의 실시 과정에서 사회복지근로는 규제되고 성립하며, 그 활동은 그것을 담당하는 근로자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실현과정에서 매개되는 활동을 사회복지근로라고 부르며 이 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을 사회복지근로자라고 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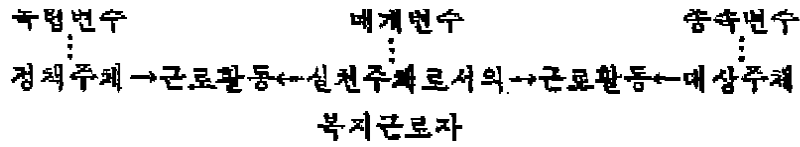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의 원조활동은 금전급부, 현물급부, 서비스급부의 방법에 의해 대상자의 생명유지·생활확보를 확립시켜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활동목적은 직원과 대상자와의 대인적 접촉을 통하므로써 구체적인 활동이 제공된다. 즉, 복지근로자의 업무(복지근로)를 통하지 않고는 원조활동이 구체화되지 않는다. 여기에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 복지근로의 위치가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을 이론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표 2와 같이 구성된다.

그래서 이 이해를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근로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³⁾

1) 사회복지의 분야에 대한 사항은, 宋鄭府, 社會福祉體系와 分野에 관한 研究, 『社會福祉研究』 제19집, 中央大 사회복지학과, 1985, p. 20

2) 사회복지근로(자)론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구상과 시점은 一番ヶ瀬康子·眞田是編, 『社會福祉論』, 有斐閣, 1975, pp. 65~87을 참고하기 바라며, 또한 이 책을 번역한 尹晉憲, 『社會福祉論』, 文佑社, 1983, pp. 80~107도 참조바람.

3) 小川利夫 共編, 『社會福祉學を論』, 有斐閣, 1976, pp. 280~282



첫째로, 근로목적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 노동력의 보전과 사회체제의 질서유지라는 기능을 가지고 다른 정책을 보충·대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있어서는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최저한을 확보하고, 이것을 통하여 국민이 자기 자신의 생활, 권리, 문화를 스스로 지키며 발전시키는 요구, 운동, 조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후자의 기능에 사회복지근로의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근로는 국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최저한의 권리로 또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보장되면,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하고 전인적 인간으로 발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근로자에 의해 수행되는 조직적·기술적 원조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로, 사회복지근로의 대상은 우선 정책주체(국가)에 의해 사회문제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잘라내어 한정적으로 선택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소득의 부족, 결여라는 기준과 상품가치로서의 노동력이 결여된 아동, 노인, 심신장애, 질병 등의 속성과 관련시켜 유형화·범주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화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과학적으로 행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활동에 의해 또는 정책의도와 제도의 실시과정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근로의 대상은 6가지 유형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1) 제도적으로 대상화되어 있는 것

- ① 현재화하고 실제로 대상화되어 있는 것, ② 현재화하고는 있으나 제도적 측면에서 수용할 조건이 없어 배제·대기되어 있는 것, ③ 제도적으로 대상화되어 있으나 대상자가 의식하고 있지 않아 잠재화되어 있는 것, ④ 제도적으로 대상화되어 있지만 대상자가 무언가의 이유로 사퇴 또는 거부하

(2) 개고에 그치지 않고 배양되어야 하는 것

① 생활의 실태와 현행제도의 방침에 따라 대상화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시과정에서 각종 제한을 받아 대상에서 탈락된 국민의 요구, ② 이론적으로 대상화되어야 할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준, 제한규정 등 제도상의 결함·불비에 의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

세째로, 사회복지근로의 구체적인 실천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근로자가 여러가지 방법에 기초하여 활용하는 복합물로서의 근로수단이 있다.

그것은 ① 필요한 제도의 정비와 그 급부, 서비스 등의 수준·내용과 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의 수속 등의 제도적 수단, ② 사회복지근로자의 전문적 지식, 기술 및 과학적 태도 등의 전문적 역량으로서의 수단, ③ 시설, 단체, 관계협력기관 등의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수단, ④ 대상자 및 대상자 조직의 운영참가 및 협력·공동의 조직으로서의 수단 등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근로과정은 정책주체(국가)의, 정책의도의 실현과정이고 동시에 대상자인 국민에게 있어 진실한 사회복지의 목적에 대한 실현과정이기도 하며 사회복지근로수단은 그것 중 어느 것의 조건을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근로자는 스스로 근로의 방법과 근로수단의 활용에 단순히 숙달하는 것만이 아니고 대상자를 위한 진실한 사회복지근로의 목적을 실현하는 입장에서 직책을 수행한다는 철학 내지 윤리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한편으로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최저한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근로의 이면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근로자가 수행하는 사회복지근로의 기본적 성격은 근로대상(대상문제·대상자)의 특수성에 대한 근로주체(사회복지근로자)의 관계로부터 요구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적 성격을 갖고 있다.⁴⁾

첫째로, 생명과 생존과 인격(발달)의 유지·발전을 보장하는 종합적 노동(근로)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보장과 생존보장으로서의 가사적 노동을 통하

4) 前掲書, pp. 284~290 또는 一番ヶ瀬康子 共著, 「社會福祉入門」, 有斐閣, 1979, p. 186

틀째로는, 생활의 전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생활내용을 결합시켜 목표를 실현하는 종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존과 인격의 발전은 전생활(다면적인 생활영역과 생활내용,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속에서 실현시켜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의 종합성 때문에 생활전개상의 여러가지 내용과 그것에 맞는 서비스를 결합시켜 종합화하지 않으면 생존과 인격의 발전을 충분히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전생활의 결합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서비스·복지근로의 상호적·종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더구나 복지근로의 이러한 종합성이 또근로에 있어 협동과 조직성, 팀웍 등을 필요로 한다.

세째로, 대인적·대인격적 접촉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근로에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인서비스로서 행하여지는 즉, 직원과 이용자와의 접촉, 인격적 접근을 통하여 실천되기 때문이다. 이 인격적 접촉을 동반하기 위하여 복지근로에 있어서는 특히 고도의 윤리성과 인간관이 요구되는 것이다.

네째로, 전문적 근로로서의 특징이다. 복지근로에 있어 일상적인 성격과 신변적·가사적 성격 때문에 전문적 측면의 무시와 경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아동에게는 제각각 특별한 장애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상·발달상의 장애가 초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장애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그것에 기초한 대응을 알지 못하면 좀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생활과 발달의 유지만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립과 개발을 촉진하는 원조와 서비스도 필요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이것에 기초한 합리적 방법과 고도의 윤리관을 결비한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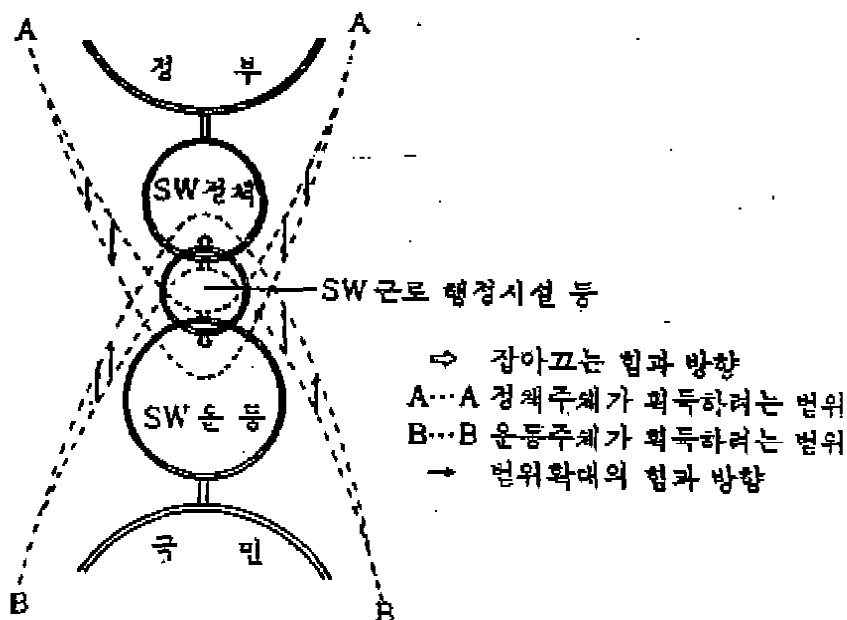
이상 사회복지근로의 특징적 성격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① 권리보장 근로로서의 사회복지근로, ② 개별적·구체적 효과근로로서의 사회복지근로, ③ 인격적·윤리적 책임근로로서의 사회복지근로, ④ 자율적 과학근로로서의 사회복지근로, ⑤ 집단적·조직적 근로로서의 사회복지근로, ⑥ 대상자와의 공동작업으로서의 사회복지근로 등이다.

4. 社會福祉勤勞者의 役割과 專門性

사회복지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자본가가 국가를 통하여 행하는 정책 및 그것에 종속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근로자로 대표되는 대다수 국민의 민주주의적 운동 및 그 발전 속에서 형성되어 온 사회복지활동으로 사회복지근로자의 실천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정책의 힘은 자본주의 사회의 법칙인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제일주의와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논리를 준비한다. 그리고 활동은 자유·평등·박애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생활과 권리의 확보를 획득·발전시키는 민주주의의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 2가지 논리에서 도출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활동의 상호관계를 도식화한 것이 표 3의 사회복지관계도식⁵⁾이다.

여기에서 복지근로자가 국민대중 특히, 사회적 부조정과 불충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조하게 하여 그들의 전면발달과 생존권 보장, 생활구조의 정비,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과 관점을 5가지 점으로 정리하여 검토해 본다.⁶⁾

〈표 3〉 사회복지관계도식



5) 小川利夫 共編, 前掲書, pp. 290~292

6) 仲村優一 共編, 「社會福祉教室」, 有斐閣, 1977, p. 283

(2) 실천·원조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기술이 가지고 있는 중립성은 원조를 필요로 하는 권리주체에 대하여 그것이 누구이든 민주적이고 공평한 서비스를 부여해야 하며 현행의 정책·제도를 변혁하기 위한 소재를 제공한다.

(3) 사회적 정의·불공평을 인지하는 사회적 감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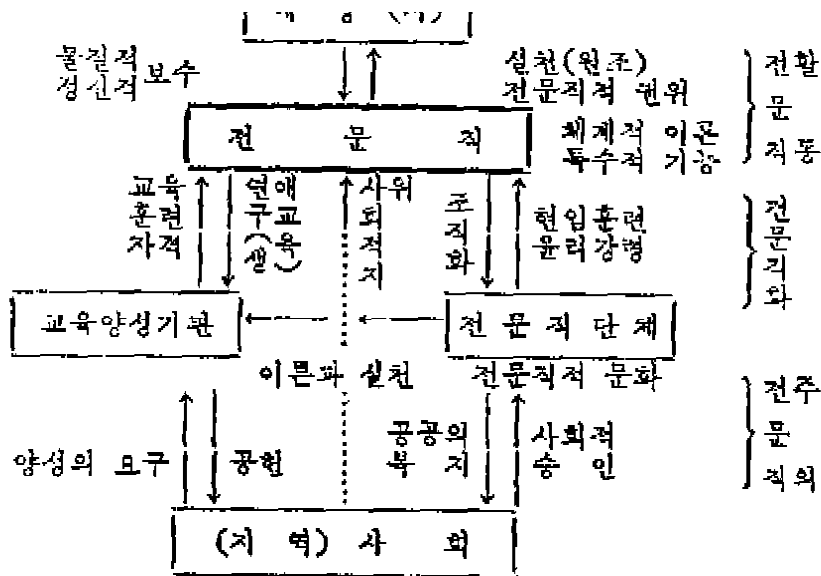
(4) 사회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시점;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제의 근본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역사의 발전법칙에 관한 종합적·통일적인 사회과학적 시점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적 인간관과 가치관; 노동력이라는 척도의 인간을 선별하는 산업주의적 인간관과 다른 이 인간관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로 중요시하며 권리주체와 함께 있는 복지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근로자의 역할을 국가(경제주체)와 대상자(대상주체)와의 관계로서 접근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근로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① 사회복지근로자의 지식과 기술이 국민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활동에 과학성을 부여한다. ② 사회복지근로자의 근로 그 자체가 대상자에게 생활구조의 정비를 촉진시킨다. ③ 사회복지근로자는 정책의 의도와 대상자의 요구와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매개자 *mediator*로서 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④ 사회복지근로자의 활동은 복지종사자의 결집을 가져와 국민의 사회복지 활동에 민주주의적 정신과 규율성·조직성을 부여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사회복지근로의 전문성에 대하여 알아 본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의 사회적 성격 및 기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며 이 역할은 사회구조 내에서 사회적 승인을 받으려 한다. 즉, 사회복지근로자도 「사회복지전문직」이라는 위치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여 왔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복지에 있어 그 전문직적인 지위를 비전문적인 직업에서부터 구별하는 공통된 속성으로서 E. Greenwood는 5가지 요소 즉, ① 체계적 이론 *systematic theory*, ② 전문직적 권위 *professional authority*, ③ 사회적 승인 *sanction of the community*, ④ 윤리강령 *ethical codes*, ⑤ 전문적 문화



professional culture를 열거하고 있다.⁷⁾ 이 조건과 양성기관, 일반사회, 대상과의 관련을 나타낸 것이 표 4의 사회복지전문직 성립의 관련도식이다. 이 도식을 참고하여 보면 전문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법제화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5조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객관적으로 전문직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의 전제로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전문직적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와 대가임금, 근로조건의 정비가 요구된다. 더우기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가치관은 개인인 복지근로자만이 아니고 보편적인 객관성·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최대공약수로서 전문직이 가져야 할 가치·태도를 명문화시킨 것이 윤리강령이다. 이것은 사회복지근로자가 활동하는 실천자적 가치의 준거가 되며 전문직으로서의 권적의식을 의미있게 해 준다.

5. 결 론

사회과학은 K. Popper가 말하는 반증가능성 *falsifiability*의 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비판적 방법 *critical method*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복지학 이론도 사회과학의 학 분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에든 반드시 반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기존이론을 비판하려는 것은

7) Eanest Greenwood,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Vol. 2, No. 3, 1957, pp. 45~55

만 것에 대한 실빠보 보고, 사회복지실천자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사업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사항이 헌신, 희생, 봉사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 사회복지종사의 전문직적 「본질」에 곤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사업가도 사회적 존재자로서 인간이며 「생활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대상자의 복지를 향상·증진하는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사업가는 전문직업적 이타주의자 *professional altruist*이다. 그래서 열의와 헌신으로 공공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천직적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사회복지실천의 진보를 위한 발전적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무시하고 오로지 사회사업가들에게 희생, 헌신, 봉산만을 계속 요구한다면 Worker가 Client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활인」으로서 Worker의 신분적·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본연의 직무에 곤란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래 사회사업가라는 전문직에 일생을 종사하고자 하는 사회사업학과 또는 사회복지학과 재학생(85년도 보사부통계 : 4,383명)과 졸업생(85년도 졸업 : 612명)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더우기 현재 사회사업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현실적 문제이고 고민이다. 이와 같은 문제상황은 사회복지 전체의 후진성과 후퇴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 우리들은 사회사업의 직업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봉사와 근로개념으로서 사회사업의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직업의 이중구조를 인정하고 그것에 기초한 사회사업의 활동을 인식한다면 분명한 사회사업 고유의 활동영역과 사회사업가의 역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Worker가 일하지 않고 요구만 한다는 식으로 얼핏 받아들이기 쉬우나, 여기서 다시 확실하게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희생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회사업종사자와 사회사업가들에게 그들이 더욱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저한의 신분보장과 생활보장을 해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므로써 사회사업가 그 자신과 가족은 생활할 수 있고 보다 적극

